

01 교회소식

어린이 천국,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찬양, 봉사 등 은혜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식을 전한다.

02 생명의 말씀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진리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고,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03 신앙상담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인가요?”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다. 이처럼 믿음에는 크고 작은 분량이 있다.

04 간증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주님의 사랑~

악성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한 뒤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정숙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31호 2012년 5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천국 소망 가득케 하신 주님, 사랑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쑥쑥 자라나는 만민의 어린이



“우리 마음 하얀 마음/ 주님 주신 예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흰돌성가대.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진리의 꿀을 공급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 특히 예능부(찬양팀, 율동팀, 워십팀, 반주팀, 고적대)로 활동하며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각종 행사나 토요찬양예배(오후 3시) 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로 구성된 흰돌성가대(지휘 양혜숙 찬양선교사)는 때를 좇아 예

배와 교회 행사 시 특송으로 영광 돌려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 또한 만민아동봉사대에 소속된 어린이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한다. 이뿐 아니라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온 만민의 어린이들은 아름답게 성장해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 각 분야에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나오고 있다. 5월 6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

교(교장 장성식 목사)에서는 교역자회장 이수진 목사를 감사로 ‘2012 어린이 주일예배’를 드린다. 아동주일학교 예능부가 준비찬양을 함께하며, 사회는 김정도 형제(5학년), 대표기도는 박예찬 형제(6학년), 성경봉독은 양지혜 자매(6학년)가 담당한다. 한편, 편집국에서는 아동주일학교 중반기 공과교재 『십자가의 도-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간한다.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소개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으로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자취’ 코너는 주님의 행적과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 월드성결센터에서 세미나 개최

미국 플로리다 주 노스 포트시에 소재한 월드성결센터에서 지난 4월 20일과 21일, ‘성경과 삶에 나타나는 성결’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월드성결센터(대표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는 2011년 5월, 성결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한국,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했다. 마크 마잘레프 목사의 인사말, 모글리스 박사의 개회사에 이어 미국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교회 담임인 비탈리 피쉬버그 목



강사 정구영 목사(우)와 ‘성경과 삶에 나타나는 성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좌)

사가 ‘성결 복음’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이후 주강사 정구영 목사(만민중앙교회 부목사)는 첫째 날에 ‘하나님은 왜 성결된 자녀를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전했다. 둘째 날에는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되는 방법과 성결된 영의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4월 22일 주일에는 노스 포트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슬라빅 오순절 교회와 베니스 시에 위치한 러시아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설교했고 많은 사람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불가리아에서도 기독의학 콘퍼런스 열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 사례를 의학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작년 호주 브리즈번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전을 갖게 된 불가리아의 류브카 탄체바 박사가 WCDN의 사역을 조국에서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낙태 반대 운동’, ‘줄기세포’, ‘장애인 재활’,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

뤄졌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마비, 백혈병, 암 등이 치유된 사례가 발표됐다.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좋은 반응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인근 발칸 지역 국가들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전 세계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16개 지부가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6:19~23)

세 친구도 있었지요.

그런데 왕의 진미에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10일 동안 채식을 할 테니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10일 후에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빛나고 윤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왕궁에 등용되게 할 뿐 아니라,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능을 더해 주셨지요.

2.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다니엘

다니엘이 민첩하고 방백들이나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들과 방백들은 시기하며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니엘이 윤리적 면이나 국법을 어긴 일이 없는지 찾았지만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으로 다니엘을 책잡고자 계락을 꾸밉니다. 즉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왕에게 제정하게 하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차례씩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짝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법을 어긴 죄목으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악한 무리

들의 계락을 왕에게 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악한 무리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로 인해 해를 받아 생명을 잃게 될지언정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 굴로 달려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었지요 (단 6:21~22).

다니엘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긴장된 순간에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무고한 자신을 사자 굴에 던져 넣은 왕이 서운하고 미웠을 텐데 다니엘은 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이처럼 선한 사람은 설령윗사람의 실수로 커다란 해를 당할 뻔했다 해도 상대를 민망케 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민망할 텐데 거기다 대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윗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윗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자 하지요.

3. 다니엘과 같이 무죄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니엘과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

시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 주지요.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한 악한 자들은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져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단 6:24).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리도록 써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단 6:26~27). 따라서 죄가 있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으면 다니엘처럼 죽음도 피해 가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물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다니엘은 감정이나 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와 부딪치지 않고 상대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 말하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위배되는 감정을 모두 제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거나 사람들 모르게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사자 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권세를 잃는다 해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지요.

조용히 피해 갈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지켜 행했고 하나님 뜻이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금도 원망하거나 억울하다 하지 않았고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이처럼 양면성을 다 갖췄을 때 진정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썼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장에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까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상대를 해롭게 하거나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때를 기다리며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반드시 선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을 좇아 정도를 걸으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1.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 귀족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융화정책의 일환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 흠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해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왕궁에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3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연희마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 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 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336, 5615(번도), 5616(번도번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안·청년·비율·미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절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믿음에도 분량이 있나요? 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싶어요

로마서 12:3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가 하면(마 15:28)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지요(마 17:20). 이처럼 믿음에는 크고 작은 분량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육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1. 영적인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른 믿음의 분량

요한일서 2:12~14에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을 말합니다(요일 2:12). 곧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지요(요일 2:14).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기에는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해내는 것처럼 ‘청년들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많아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굽히지 않으며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 늘 승리하는 삶을 영위합니다(요일 2:13).

‘아버지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입니다(요일 2:13).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불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을 닦아갈 뿐 아니라 아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2. 백보좌 대심판 때에 측정하는 믿음의 분량

에스겔 47:3~5에는 어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람의 몸에 차오르는 높이를 측량해 물을 건너게 합니다.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며 장차 백보좌 대심판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측량하시니

Q 얼마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정말 믿음에도 크고 작은 분량이 있는 것일까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밭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자녀들의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의 1단계를 말합니다.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아이들의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의 2단계를 말하며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청년들의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의 3단계를 나타내지요. 자기의 키를 넘을 만큼 물이 창일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의 4, 5단계를 뜻합니다.

3. 공력을 불로 시험해 측정하는 믿음의 분량

고린도전서 3:12~13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터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공력이란 힘을 들여 쌓아놓은 정성, 곧 사람의 믿음과 행함을 나타냅니다.

메말라 생명이 없는 짚의 믿음은 불에 타버리는 죽은 믿음, 곧 구원받을 수 없는 육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불에 타지만 생명이 있는 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영적인 믿음의 1단계를, 나무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인 믿음의 2단계를 나타냅니다.

불 속에서 모양이 변형되기는 하지만 변형된 형태라도 남아 있는 보석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를 말합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은의 믿음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4단계를 뜻합니다.

금의 믿음은 불같은 시험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헤드리는 믿음이며, 영의 열매를 100퍼센트 채운 믿음, 온 집에 충성하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 나타나(막 16:17~18)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12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싸워 버리는 만큼, 즉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주님 마음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며,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짚의 믿음	풀의 믿음	나무의 믿음	보석의 믿음	은의 믿음	금의 믿음

온 세상에 외치는 방송, GCN

가정의 달 5월 | “생명의 말씀과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GCN에서 만나보세요!”

이재혁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육체의 결여 9
- 천국 1,2,3,4
- 헛되고 헛되니 1,2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 1577-2073

